

앞치마 두른 아빠들 “음식은 정성이군요”



오광록 기자의 '광주 5味' 요리 도전기

〈1〉 요리는 설거지부터

요리하는 아빠가 늘고 있다. 딱딱한 가정의 옷을 벗고 앞치마를 두르는 남자들이 사랑받고 있다. 한때 결혼을 하지 않은 '요리하는 남자'가 여성들에게 인기를 끌었다면, 이제 가족을 위해 부엌을 찾는 '요리하는 아빠'가 주목받고 있다. 광주 일보는 기자가 직접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이 진행하는 남성 대상 요리 강습 프로그램인 제6기역티브스니어 전통음식 특별강좌에 듣고 '광주 5미(味)' 요리법과 아빠들의 요리 이야기를 들려준다. <편집자주>

은퇴 후 '삼식이' 안되려고
질병 치료음식 연구 위해
관광지·맛집 기사 쓰려고

설거지·싱크대 정리 등
요리의 기본부터 배우죠

떡갈비·김치·낙지호롱 등
전통요리법 7주 동안 전수



지난 9일 광주시 동구 운림동 전통문화관에서 열린 전통음식 특별강좌에 참가한 수강생들이 주방 사용법 등을 듣고 있다.

지난 9일 오전, 광주시 동구 운림동 전통문화관 요리실습실에 중년 남자들이 속속 도착했다. 반백의 신사들은 주저 없이 조리대 앞에 앉았고, 예순을 훌쩍 넘긴 남성도 많았다.

광주시지정무형문화재 제17호 남도의 레움식장 최영자 선생에게 음식을 배우기 위해 모여든 20명의 사연은 다양했고, 경력도 화려했다.

박인화 전 광주시의회교육위원장은 “가족을 위해 애호박찌개를 해줬는데 손녀가 B화점을 줬다”면서 “음식도 중요한 문화이며, 맛과 멋이 있는 삶을 살아 보기 위해 등록했다”고 말했다.

또 한의학을 전공한 김상섭씨는 “남도의 전통 음식을 통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직접 조리대에 섰다”고 소개했고, 한약재를 유통하는 다른 남성도 “건강한

삶'을 위해 요리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프리랜서 여행전문기자인 박재완씨는 “관광지와 맛집을 곁들여 기사를 쓰는데 음식을 알아야 제대로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다”며 ‘컬’을 잡은 계기를 소개했다.

은퇴를 했거나 준비하고 있는 남성들도 많았다.

이들은 “가족을 위해 직접 요리를 하고 '다 같이 나눠 먹는 즐거움'을 맛보기 위해 요리를 배운다”고 했다.

‘삼식이’가 되기 싫어 직접 요리를 하겠다는 남자도 있었다. 은퇴를 한 뒤 집에서 세 끼 밥을 먹으면 흔히 ‘삼식이’라고 하는데, 차라리 직접 요리를 해 아내와 나눠 먹겠다는 각오였다.

이날 강의는 부엌칼 한 번 잡아보지 않고, 마늘 한 번 다져보지 않은 남자를 위한 주방 사용법 중심으로 진행됐다.

요리의 기본인 설거지와 싱크대 정리하는 법 등을 배웠다. 싱크대 배수구 음식물 찌꺼기 거름망 사이사이를 잘 닦아야 한다는 감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남자들도 많았다.

평생 어머니와 아내가 해주는 밥만 먹고 살았던 남자에게는 거름망을 제대로 닦지 않으면 음식물 찌꺼기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건 먼 나라 이야기 같았다.

요리를 하기 전, 설거지와 뒷정리 방법부터 익히니 가족에게 먹일 음식을 조리할 때 얼마나 많은 정성과 사랑이 필요한지 느낄 수 있었다.

이들은 7주 동안 광주시가 지정한 이 지역 대표 음식인 ‘광주5미’를 직접 만들어야 한다. ‘광주5미’는 오리탕, 남도한정식(정갈), 송정떡갈비, 김치, 무등산보리밥이다. 또 수강생들은 파래자반무침, 도토리묵무침, 낙지호롱 등 12가지 음식을 만들게 된다. 최영자 선생에게 요리 비법도 전수받는다.

전통문화관 관계자는 “맛벌이 가정이 늘고, 고령화로 남편의 가사 분담이 늘면서 전통 요리를 배우려는 남자들이 많아졌다”면서 “그동안 진행한 요리 강좌 모두 수강생들이 몰려 들었고, 네 번 이상 수강한 남성도 있었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매달 만나는 예술 속 세시풍속

다다, 대인시장서 '세시봉전' 연중 개최...1월 주제 '찬양'

‘모든 을(乙)들과 미(未)생들을 희망의 해(年)로 초대합니다.’

예술인협동조합 다다(이하 다다)가 대인시장 중앙골목과 대인수산시장 주차 빌딩 5층에 있는 다다창작스튜디오에서 ‘세시(歲時) 봉(Bon)-재래시장 속 세시풍속 전’을 연중 개최한다. 매달 대표 세시를 선정해 그 의미를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다양한 의례형식과 놀이문화에 공공예술의 색을 입혀 시각예술로 표현하는 전시형식이다.

다다는 올 한해 ‘세시 봉’전을 진행하면서 문화예술시장으로써 대인시장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향후 예술인 자립과 창작촌 설립에 대한 작가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공예술 후원제도 ‘심시일반’을 운영해 예술가의 재능과 시민들의 소액후원금을 기부 받아 전시살림에 보탬 계획이다.

16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1월 전시 주제는 찬양(讚揚)이다. 올미년 양의 해에 좋은 일만 있기를 소망하는 내용이다.

다다창작스튜디오에서 열리는 전시와 함께 대인시장 중앙거리에서 실사 출력된 작품이미지를 배너형식으로 전시한다. 이번 전시에는 강선호·고재근·김경란·배수



이창훈 작 '올해는 니가 최고'

민·서문찬·안종만·윤남웅·이기성·장윤환·정유승·채지운씨 등 모두 25명이 참여한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세월호 유족 인터뷰 '금요일에 돌아오렴' 나와

글로 세월호 참사의 증거를 남기고 흩어지는 고통을 사회적 기억으로 만들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작가기록단이 유가족들을 직접 인터뷰한 '금요일에 돌아오렴'(장비)이 출간됐다.

영상팀과 사진팀, 구술과 기록관리를 위한 학자팀이 모여 시민기록위를 만들었고 작가 김순천 씨와 인권교육센터 ‘들’의 활동가 배정내 씨 등 12명으로 작가기록단이 꾸려졌다. 이들은 안산 단원고 희생 학생들의 부모 13명을 만나 그들이 어떻게 자식을 잃은 순간들을 견뎌내고 있는지 ‘그 떨리는 숨소리까지’ 담았다.

윤태호, 손문상, 홍승우 등 8명의 만화가가 삽화를 보냈다. /연합뉴스



사고 다음날 대통령과 통화했던 것으로 알려진 단원고 2학년 1반 문지성 학생의 아버지 문종택 씨는 대통령과의 통화 후에도 변한 게 없었다고 이야기한

책에 분노와 고통, 슬픔만 담겨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 9월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진상규명분과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종대 씨(2학년4반 박수현 학생의 아버지)는 진상 규명을 아들이 내준 속제로 표현했다. /연합뉴스

제9대 광주예총 회장 선거 31일 실시

21일 후보 등록 마감

제9대 광주예총회장 선거일정이 확정됐다.

제9대 광주예총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갑수)는 13일 광주예총회관 회의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1차 회의를 갖고 회장 선출을 위한 정기총회를 오는 31일 11시 광주예총회관 방울소리공연장에서 개

최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오후 5시까지 최종 선거인단 확정과 입후보 등록을 마쳐야 한다.

광주예총 선거는 10개 협회당 대의원 8명씩 80명과 부회장단 6명, 특별위원 5명 등 모두 94명이 투표권을 가지며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를 얻어야 회장으로 당선된다. 임기는 4년이다. /김미은기자 mekim@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외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연말 송년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1·2층 이태리가구 3층 통원목가구 4층 모던가구

이태리가구 혼수가구 특가전

홍스케이스 SINCE 1990 www.hong79.com 광주 동구 장동 58-15 ☎ 1899-0240